子平粹言
李虛中命書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II

1강 용신법의 역사

격국과 용신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격국　사주의 전체적인 틀

용신　(격국에 따라서) 정해지는 길흉 판단의 척도

격국의 종류

정격 -내격

-외격 -종격

-화기격

잡격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徐樂吾 〈子平粹言〉

억부용신 (강약의 중화를 이루는 것으로 용신)
통관용신 (대립된 두 요행의 싸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용신)
병약용신 (병을 제거하는 약을 찾아서 용신)
조후용신 (한난조습을 조절하는 것으로 용신)
전왕용신 (강한 세력을 따라서 용신)

*순역(順逆)용신 〈자평진전〉
4길신 격국은 순용하고 4흉신 격국은 역용하는 것으로 용신

서자평 〈낙록자삼명소식부주〉

- 일간의 강약을 따라서 중화를 이루는 것으로 용신
- 일간의 강약은 득시(得時)가 가장 중요
- 지장간 이론과 월령용사(月令用事) 이론

서자평 〈명통부〉

- 월령 중심으로 격국 제시 (이후의 명리학에 뼈대 제공)
- 정격과 잡격의 대부분의 틀 제시
- 일간의 강약 및 육신의 길흉을 가려 대운과 세운 판단 (억부용신)

〈연해자평〉

- 〈명통부〉와 격국론 명칭 거의 일치, 종격(從格) 추가
- 억부용신과 십신기준 길흉 혼재 (후자는 〈자평진전〉으로 발전)

〈명리정종〉

- 〈연해자평〉의 계승
- 용신론에서 병약론, 동정설, 개두설 주장

〈삼명통회〉

- 〈연해자평〉과 〈명리정종〉 연장선
- 월지 중심 격국 및 일시지 유형 분석 추가
- 추명의 핵심으로 일위용신(一位用神) 강조

〈명리약언〉

- 내격(10정격)과 외격만 인정 잡격 완전 배제
- 억부용신법 집중 강조 (억부용신법 대세론의 결정타)

〈자평진전〉

- 격국용신(순역용신) 주장 (역시 잡격 배제)
- 성격(成格)과 파격(破格) 중점
- 용신론은 격국론에 종속 (격이 곧 용신)

〈적천수(천미)〉

- 4종격 : 종왕격 종강격 종기격 종세격
- 억부/조후/통관/종왕 모두 사용
- 극제보다는 설기를 우선하는 원칙 제시

〈命理約言〉 看命總法

看命大法 不過生剋扶抑而已

列下四柱 先看日干是何五行 隨看月支 或是生我剋我 或是我生我剋

看命에 大法이 있다면 생극(生剋)과 억부(抑扶)에 불과할 따름이다.

사주를 배열해 놓고 먼저 일간의 오행이 무엇인가를 본 후에

월지의 오행을 보아 상호관계를 살피는데 월지가 나를 생하는지 극하는지

혹은 내가 월지를 생하는지 극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1강 용신법의 역사

如月支本氣透於天干 寅透甲 午透丁 卽取爲格 係正官 食神 偏財 偏印 卽宜生之助之 係偏官 傷官
則宜制之化之 若本氣未透遭剋 則寅不用甲 而用所藏之丙戊 午不用丁 而用所藏之己 若所藏之神
又不透遭剋 則不用月支 而用別干支之勢盛力旺者爲格 其祿刃比劫 無論在干在支 均不以取格 但用爲日干之助耳

월지의 본기가 천간에 투출했다면,
예를 들어 寅中의 甲木이나 午中의 丁火가 투간 했다면 바로 투출한 그것으로 격을 삼는다.
그런데 정관, 식신, 편재, 편인격이라면 생조함이 마땅하고 편관, 상관격이면 마땅히 제화시켜야 한다.
만약 본기가 투간하지 않았거나 극을 당했다면,
예를 들어 월지가 寅이라면 甲木을 쓰지 않고 나머지 지장간인 丙이나 戊를 쓰는 것이며 午의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丁火를 쓰지 않고 己土를 쓰는 것이다. 만일 그마저도 투간하지 않았거나 극을 당했다면
월지에서 격을 취하지 않고 다른 간지에서 세력이 왕성한 자를 찾아 격으로 삼는다.
祿과 刃 · 비겁은 천간이나 지지 중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격으로 삼지 않고 다만 일간의 힘을 돕는데 쓸 뿐이다.

總之以日干與財官等較其强弱 强者抑之 弱者扶之 局不能扶抑者 以運扶抑之
其必不可扶者則棄之 必不可抑者則順之 惟合化格 一氣兩神格 暗沖暗合格 不在此例

간추려 말한다면 일간과 재, 관 등의 그 강약을 서로 비교하여 강한 것은
그 힘을 억제해 주고 약한 것은 힘을 보태주는 것이 간명의 대법인 것이다.
그러나 원국에서 억부할 수 없다면 운에서라도 억부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도와줘도 일어나지 못할 것은 포기해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는 그 기세에 순응해야 한다.
그러나 合化格, 一氣兩神格, 暗沖暗合格 만큼은 이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1강 용신법의 역사

總之淺而易見者小 淸而難測者大 淸而有神者貴 濁而無氣者賤 純粹中和者貴而安
奇怪偏駁者貴而危 惑謂太平之世取正 有事之秋取奇 余嘗閱古今之命數萬 承平安樂 儘多七煞傷官
開創經綸 不少正官正印 特奇正之命 世多世少 氣運偶然 非奇者生太平之世必無用 正者生有事之世必不貴也

달리 표현한다면 물이 얕아서 속이 쉽게 보이는 것은 그릇이 작은 것이고
맑고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그 그릇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하면서 신(神)을 갖추면 귀하게 되는 것이지만, 탁하면서 기가 통하지 아니하면 천한 것이다.
순수하면서 중화를 이룬 자는 귀하면서도 안정되고 기이하고 괴상하며 편중되고 순수하지 못한 자는 귀하게 되더라도 위태로운 것이다.
어떤 이는 태평한 시대에는 正을 취하고 유사시에는 奇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일찍이 고금의 수많은 명조를 본 바에 의하면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칠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개척과 창업 정신으로 세상을 경륜하며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도 정관, 정인의 명인 사람이 적지 않았다.
단지 奇命과 正命은 시대에 따라 어느 때는 奇命이, 어느 때는 正命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 기운의 흐름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 뿐이고, 태평시대에 태어난 奇命은 쓸모없는 것이라거나 난세에 태어난 正命은 귀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1강 용신법의 역사

推命先看日干 或得時 或失時 或得勢 或失勢 下坐某支 緊貼某干 於日干生剋扶抑何如
隨看餘三干及四支 於日干生剋扶抑何如 此恒法也 然不特日干而已 凡柱中干支皆當如此研究 如看年干
先看得時得勢否 下坐何支 緊貼何干 於年干生剋扶抑何如 隨看餘三干及四支 於年干生剋扶抑何如 月干時干亦然

추명을 할 때 먼저 살필 것은 일간의 상황이니 즉 일간이 득시했나 실시했나, 혹은 득세인가 실세인가를 보고
아울러 좌하의 일지가 무엇인지 또 일간의 옆에 붙어있는 천간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일간과 이들의 관계가
생극관계인지 억부관계인가를 알아보고 다음에 나머지 세 천간과 네 지지가 일간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추명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인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일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주를 구성하는 모든 간지를 이런 식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연간의 경우에도 우선 득시, 득세 여부를 살피고 앉은 자리에 있는 지지는 무엇이며 바로 옆에 있는 천간은
무엇인가를 살펴서 연간과의 생극 억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밖의 세 천간, 네 지지와 연간과의 생극 · 억부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월간과 시간 및 다른 지지도 보는 것이다.

如看年支 先看得時得勢否 上載何干 緊貼何支 於年支生剋扶抑何如 隨看餘三支及四干
於年支生剋扶抑何如 月日時支亦然 如此一一研究的確 然後用之為官殺 為財印
為食傷 其是強是弱 當用當舍 自然精當無差 洞澈不惑矣 此看命第一要訣也

예를 들면 연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우선 득시, 득세 여부를 살피고 연지 위에 싣고 있는 연간은 무엇인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지는 무엇이며 그들과의 생극, 억부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밖의 세 지지와 네 천간과의 관계,
즉 생극, 억부를 보는 것이며 월 일 시지도 같은 방법으로 보아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 연구 검토를 거쳐서 정확히 파악한 후 (여기에 십신의 명칭을 붙여)
官殺도 되고 財印도 되며 식상도 되는 것이다.
거기에 이들의 강약을 살펴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면 자연히 정확해져서 착오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되면 명이 뚜렷하게 보여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게 되니 이것이 간명의 제일 중요한 비결인 것이다.